
17/03/12(주) 주일예배 / 제목 :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창 16:1~16) p.19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이 큰 고통이 느껴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선택과 결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선택과 결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의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과 결단의 순간마다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은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래는 자녀가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풍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를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 역시도 여주인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인 사래의 요구에 따라 응했다가 나중에는 도망가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래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래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와 산지 10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없자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시도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3절)**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이는 사래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함으로 생긴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누가 낳았든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래가 시도한 방법은 사래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 아브람의 자손을 낳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족장이나 상류 계층에선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보도록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태어난 아기는 여종에게가 아니라 아내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래의 행동은 당시의 생활 풍속을 따른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인 사래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래는 이 원인을 남편인 아브람에게 돌리며 항변합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러놓고 일이 잘못되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

라고 허락합니다. 이에 사래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6절)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을 친 하갈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국인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하갈의 고향은 애굽의 동편 접경지역인 ‘술’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임신을 한 몸으로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래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 갈 곳은 오직 고향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갈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고향인 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길에서 목이 마른 하갈은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물 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하갈이 술로 가는 길에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샘물입니다. 하갈은 이곳에서 물을 먹고 보충하여 고향인 애굽의 술 지방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와 사자가 사막의 샘에서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난 것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하갈의 발걸음을 다시 주인에게로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8절)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지만 여호와와 사자는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는 비록 사래의 학대 때문에 도망쳐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주인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갈이 아브람 때문에 고통은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브람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람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갈이 애굽의 자기 집으로 간다면 사실상 아브람을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다시 아브람의 수하에 돌려보냄으로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언약의 계승자인 아브람이 벌려놓은 잘못된 일을 처리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아브람에게는 저질러 놓은 잘못된 일을 처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사래에게로 돌아감으로 그가 얻게 될 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창 15:5)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들 곧 하갈의 소생에 대하여 자손 번성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살지

는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12절)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 아들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인데 들나귀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는커녕 대항해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나귀 같이 된다는 말은 들나귀와 같이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길들이려고 할 것이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이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자손 번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할 정도 강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갈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언약을 기억치 않으신다면, 또한 이스마엘에게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하갈은 아브람의 자식을 낳아도 별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도 아브람의 후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또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이 말씀은 하갈에게 소망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이 만난 여호와와 사자를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는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며, 다른 하나는 ‘브엘라해로이’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4~15절)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먼저는 ‘브엘라해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갈은 이 우물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증표는 바로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11절) “...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평생의 약속을 주신 것이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약속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자신이 낳은 아들 곧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간 하갈은 아브라함의 나이 팔십 육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은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갈은 고통 받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하갈의 고통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벌린 행동 때문에 생긴 고통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심으로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고통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갈을 고통에서 돌보시고, 하갈의 소생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언제나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그분은 그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항상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 받으십시오.

결론핵심 :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